

한국 20대 청년의 對중국 정서 연구

— FGI를 활용하여

여신* · 오소정**

— 목 차 —

1. 적인가, 친구인가
2. 반중인가 혐중인가: 배척과 혐오
3. 20대, ‘나는 중국이 싫어요’
 - 1) 일상에서의 대면
 - 2) 미디어의 이미지 생산
 - 3) 사회구조적 요인
4. ‘한중관계’ 해체를 통한 통합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 20대의 중국을 향한 부정적 정서의 발현 양상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다. 한중수교 이래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부정적 정서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히 20대 청년의 부정적 정서는 두드러진다. 20대가 앞으로의 시대를 구성해 나갈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을 향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기존 연구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던 한국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인터뷰 대상자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감정은 ‘행위-반대’에서 ‘존재-혐오’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경각심을 요한다. 둘째, 인터뷰 대상자가 ‘혐중’ 정서를 갖게 된 계기로,

* 대진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전공 초빙교수

** 강원대학교 삼척교양교육센터 시간강사

①일상적인 접촉에서 접하게 된 교양 없는 중국인, ②중국의 ‘추악한 진실’을 무분별하게 양산한 미디어, ③중국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로 요약된다. 셋째 인터뷰 대상자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편견임을 부정하려는 경향과 자신을 피해자로 서사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결국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 연구가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모습을 직접적이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지렛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키워드: 혐오, 혐중, 반중, 20대, 한중갈등, 한중관계

1. 적인가, 친구인가

이 글은 한국 20대의 중국을 향한 부정적 정서 발현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다. 혐오라고 표현하는 그 감정의 바탕에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충동이 위치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을 기저로 한중관계의 해법은 ‘웨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중심적 프레임의 해체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중수교 이래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부정적 정서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국리서치가 2023년 4월에 실시한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25.1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호감도가 낮아지는 경향이다. 실제로 18~29세 한국 청년의 호감도는 15.1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고(30대 20.2점, 40대 23.2점, 50대 28.6점, 60대 31.8점), 같은 연령대에서 북한(22.3)과 러시아(24.4)보다 더 낮다.¹⁾ 또한 같은 기관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輿論論, “주요 5개국 조사”,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 226-2호), 2023.4

친구/적'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 '적(44%)'이 '친구(5%)'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18-29세의 응답은 '적(56%)'이 '친구(2%)'로 보다 극적인 비율이 등장한다.²⁾ 어쩌면 한국의 혐중(嫌中) 현상은 '20대 현상'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수치이다. 20대가 앞으로의 시대를 구성해나갈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을 향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한중관계의 미래는 명약관화일 수밖에 없다.

한국 20대 청년이 유독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중/혐중 정서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동북공정, 한한령, 한복 논란, 코로나19 등 중국과 관련된 주요 사건에 초점을 맞춘 연구다. 임대근, 임대근은 두 편의 논문에서 한중수교 이후에 발생한 다양한 문화갈등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 구조적 원인을 한국과 중국 및 국제 정세에서 찾았다.³⁾ 정진선 등은 <사이닝니키>에서 촉발된 한복논란의 인터넷 댓글에 대한 양적 분석을 진행하며 인터넷에서의 논란 전개양상과 한국인의 반중 정서를 분석했다.⁴⁾ 박선미⁵⁾, 노고운⁶⁾ 등은 코로나19 시대에 한국의 중국인 대상 유사인종주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둘째는 중국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에 관한 연구다. 김희교는 여러 논문과 저서에서 동북공정, 사드배치, 코로나 등 한국 보수 언론의 편향적 보도를 살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대중의 반중 감정을 자극하는 중요한 원인을 지적했다.⁷⁾ 최윤경은 네이버 뉴스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한국의

2)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론, “2023 대중인식조사: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17-2호), 2023.2

3) 임대근, 「한-중 문화갈등의 발생구조와 대응방안」, 한중사회과학연구, 1(3), 2012; 임대근, 「한-중 문화갈등의 발생양상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63, 2022.

4) 정진성, 박성혜, 김원,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사이닝니키」 한복 논란 및 반중 정서 연구」, 중국현대문학, 103, 2022.

5) 박선미,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오리엔탈리즘을 읽다」,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2020.

6) 노고운, 「팬데믹 감염병의 타자화: 코로나19 시대 한국 내 중국동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5(3), 2022.

7) 김희교, 「한국 언론의 동북공정 보도 비판」, 역사비평, 69, 2004; 장소영, 김희교, 「중국

반중 정서는 비단 한중 양국 간에 일어난 특정 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국가가 재생산하기도 하고 국제 질서 속에서 기획될 수도 있음을 논의했다.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을 향한 한국 대중의 부정적 정서와 그 원인에 관한 연구는 축적되어 왔지만, 20대의 상황을 면밀하게 읽어내는 데에 만족스러운 답을 구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 문헌연구나 양적연구로 진행됐으며, 대중의 경험과 인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내지 못했다. 물론 인터넷 여론을 살폈던 연구는 연구대상의 대략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연구에서 해석한 것처럼,⁹⁾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연구대상의 발언 수위가 높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일종의 유희문화적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그 결과를 온전히 수렴하기 어렵다.

현재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극단을 오가는 20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하다. 2023년 6월 현재 학술DB에서 ‘혐중’, ‘반중’, ‘중국 혐오’, ‘중국 감정’, ‘중국 정서’ 등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중국에 대한 20대의 인식을 다룬 연구는 단 두 편이다. 하남석 등이 2021년 현대중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청년세대의 온라인 반중 정서의 현황」과 조의행의 「MZ세대의 반중감정: 그 현황과 전망」이 그것이다. 전자는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 댓글 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세대의 대중국 인식을 확인하였고, 온라인 소통 강화와 허위보도 검열 등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후자는 여러 기관에서 수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정체성’과 ‘감정’ 개념으로 한국 청년의 반중감정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다만 전자는 온라인 공간에만 집중했다는 점, 후자는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검증이 미비한 점에서 여전히 앞의 질문에 답을 구하

관련 보도의 어휘 사용과 반중 감정-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사드 배치 보도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65, 2022; 김희교, 『짱개주의의 탄생』, 보리인문학, 2022.

8) 최윤경, 「2017~2022년, 한국의 반중(反中) 의미 - 네이버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동서인문*, 21, 2023.

9) 하남석·김명준·김준호, 「한국 청년 세대의 온라인 반중 정서의 현황」, *현대중국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21: 2쪽.

진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첫째, 온라인 공간이 아닌 바깥에서, 둘째, 충동적인 감정 배설이 아닌 이성적 사고와 언어 발화를 방법으로, 셋째, 집단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실제 경험을 나누며, 한국 20대가 생각하는 중국을 미시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선 여론조사에서 밝힌 ‘20대의 부정적 정서의 심각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대상자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묻는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부정적 감정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을 향한 감정이 야기된 일상적 계기를 묻는다. 이 접근은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동북공정, 한한령, 코로나19 등과 같은 한중갈등의 사건이 중국을 싫어하게 된 계기라면 그 사건에 대한 대상자의 견해가 어떠한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와 다르게 중국을 대하는 감정이 개인적이고 일상의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 사건의 경위와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H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녀 대학생 6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¹⁰⁾

[표 1] 인터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름	성별	나이	학력	학과	특이사항
K	여	20대 초	H대 2학년	중국어	중국인 가족구성원 ‘있었음’
J	여	20대 초	H대 2학년	중국어	중국에 호의적인 부모
Y	여	20대 초	H대 2학년	기타 외국어	중국인 가족구성원
N	여	20대 초	H대 2학년	기타 외국어	중국인 룸메이트와 교교생활
M	남	20대 초	H대 2학년	기타 외국어	안산 거주
S	남	20대 초	H대 4학년	기타 외국어	대립 주변 거주

10) 이후, 인터뷰를 진행한 인터뷰 대상자는 ‘대상자’로 기술한다.

앞의 [표1]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상자 6명 모두 20대 초반의 한국 국적 대학생이다. 이들 중 2명은 중국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고, 나머지 4명은 기타 외국어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중국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인과 많거나 적은 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들이 중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직접 경험했다는 점, 학과 및 성별 분포가 집중되어 있지 않은 점에 있어 연구대상 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모든 대상자가 H대에 재학 중인 점은 그들의 학력 수준 및 외국에 대한 포용적 태도 등의 면에서 다소 집중된 편향성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전체 인터뷰는 2023년 5월 10일 오후 4시~5시에 진행했고, 이후 5월 17일과 24일에 일부 대상자에 대한 추가 인터뷰를 시행했다. 전체 인터뷰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진행했다. 녹음 파일은 '네이버 클로바'를 사용하여 녹취록 초고를 생성한 후, 연구자가 직접 녹음본과 대조하여 오류를 수정했다. 추가 인터뷰 내용은 속기로 기록하고 첫 번째 인터뷰 기록에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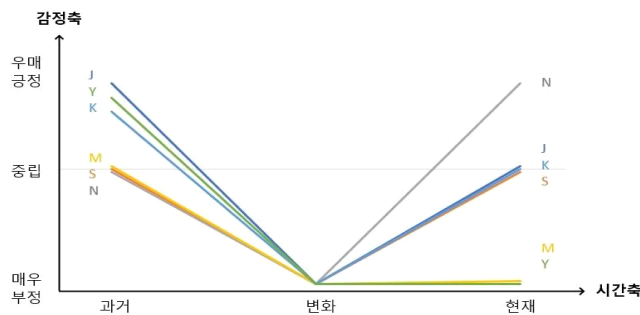
인터뷰 장소는 H대학교 강의실이다.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책상 없이 둘러앉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을 구성했다. 응답의 성실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인터뷰 질문을 사전에 알렸고, 인터뷰 과정에서 대상자의 응답에 따라 보충 질문을 추가했다.

인터뷰 대상자가 자신이 중국을 왜 싫어하는지를 서술한 내용을 '텍스트'로 본다면, 이 연구는 '20대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에 관한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2. 반증과 혐증: 배척인가, 혐오인가

중국에 대한 대상자의 감정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다만 대상자 모두 중국을 향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한 계기가 있다고 설명한다. 대상자 중 3명(K, J, Y)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중국에 호감이 있었고, 3명(M, N, S)은 중국에 특

별한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어떤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 6명 모두 중국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한 시점이 존재했다. 반대로, 1명은 중국에 대한 감정이 어떤 계기로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표현했고, 3명은 학습의 결과로 중립의 위치로 회복했으며,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들 감정의 대략적인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대상자의 감정 변화 곡선

중국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시작-변화’ 구간에 집중하여 감정 변화를 일으킨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대상자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편협한 감정을 취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추려 하기 때문¹¹⁾에 감정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한 4명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재검토 한다.

인터뷰 계획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대상자 6명에게 1번 ‘중국을 싫어합니까?’라는 질문과 2번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다만, 대상자는 1번 응답 후 자연스럽게 2번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 계기, 즉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정당성을 피력하려는 경향이 드러난다.¹²⁾

11) 로버트 치알디니·더글러스 켈릭·스티븐 뉴버그, 김아영 옮김, 『사회심리학 :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적 상황의 힘』, 웅진지식하우스, 2020: 511~513쪽.

- M: 싫어하는 성향이 좀 있다. 강…
 기타 인터뷰대상자 : ‘강’까지 나왔어요! (웃음)
- M: (고개 숙이고 웃음) 이유를, 왜냐하면 … 중국인이 …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씩 싫은 감정이 생기긴 했어요.
- N : 이게 되게 유치한 걸 수도 있는데 … 그 친구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 그 당시에는 진짜 다 싫어했어요.
- K: 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중국에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 그리고 저는 중국인이 … 그런 일이 저한테 실제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제가 접할 수 있었던 중국, 가장 최측근인 중국인이 그런 행동을 했던 거를 경험했으니까 더 안 좋아졌어요.
- S: 제가 인생의 타임라인으로 보면 20살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좀 한 20대 시작하면서부터 …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저는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 J: 저는 중국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약간 그런 입장이었는데 … 제가 이제 크면서 … 그래서 뭔가, 약간 예를 들면 … 그래서 뭔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약간 오히려 0이 돼버린…
- Y : 저는 사실 … 딱히 부정적인 감정은 없었는데… (중국 정치 관련 - 연구자 주) 수업을 듣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애네들이 진짜 비이성적이고 모순적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더 싫어하게 되긴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간략히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대상자의 부정적 응답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부정적 감정은 중국 체제와 정책 등 특정 사안을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상자가 겪은 중국인의 개인 행위나 중국에 관한 다양한 정보에서 얻게 된 모호한 이미지로 야기된 것이다. 이 모호하게 표현되는 느낌은 결국 중국/중국인 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믿음으로 확장되면서 편향되고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된다.

편향된 감정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갖고있는 응집된 의견, 즉 편견이다. 편견은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한 일반적 태도, 즉 그들에 대한 느낌”¹²⁾ 이다.

12) ‘…’로 인터뷰 내용을 생략한 이유는 대상자의 발화 방식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다.

대상자 대부분은 중국을 향한 부정적 감정을 개선하기 전, 과거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스스로의 감정이 정당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자신의 중립성을 강조한다. 대상자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 원인을 설명하려 하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제공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발언은 편견에 빠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이다. 이것은 “편협함의 표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규범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그렇다면 이들의 태도를 배적으로 보아야 할까 혐오로 보아야 할까. 최윤경은 ‘반중’과 ‘혐중’의 의미를 구분하면서, ‘혐중’은 ‘반중’에 ‘혐오’의 감정이 더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형태론적으로 ‘반중’은 ‘반[反: 반대하다]’과 ‘중[中: 중국(인)]’의 결합, 즉 ‘중국(인)을 반대함’을 의미하고, ‘혐중’은 ‘혐[嫌: 싫어하다]’과 ‘중[中: 중국(인)]’의 조합, 즉 ‘중국(인)을 싫어함’을 의미한다. ‘반중’은 중국 혹은 중국인의 정책, 체제, 이념, 사상, 문화 등에 대한 비호감, 반감, 내지 적대적인 성향을 뜻하고, 여기에 ‘혐오’의 의미적 색채까지 더해지면 ‘혐중’이 된다는 것이다.¹⁵⁾

그러나 반중과 혐중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반중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주체의 태도고, 혐중은 감정이 주도된다. ‘반-’의 용례를 보면, 이 표현은 일시적이고 특정 사안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주로 드러난다. 예컨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의 ‘반미 시위’, 2022년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는 청년 대체의 ‘반일 행동’,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반정부 인사’ 등이다. 이에 반해 ‘혐-’은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안이 누적되어 언론과 주변 여론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형성된 감정이 추가된 표현이다. 구체적 혹은 강력했던 이슈의 극점이 지난 후에도 남아 있는 복잡하고 모호한 혐오 감정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⁶⁾ 그런데

13) 로버트 치알디니, 앞의 책, 512쪽.

14) 로버트 치알디니, 앞의 책, 512쪽.

15) 최윤경, 앞의 글, 63-64쪽.

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혐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싫어하는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은 같은 것일까? 김종갑은 혐오를 ‘싫어하다’와 ‘미워하다’가 갖는 차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사과를 싫어할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는다. 사과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따름이다. 즉 사물의 존재에는 감정이 배제된다. 반면, 고양이는 옳거나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사과를 미워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끼는 물건을 망쳐 버린 고양이는 미워할 수 있다. 미움과 싫음의 대상으로서 사과와 고양이의 차이는 ‘존재’와 ‘행동’의 차이이다. 존재는 미학의 영역에 역할하고, 행동은 윤리학의 영역에 귀속된다. 달리 말해 혐오라는 감정의 원인은 미학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행동은 우리에게 이익이나 손해, 즉 우리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¹⁷⁾

중국에 대한 대상자의 부정적 감정은 미움일까 싫음일까. 두 가지 감정 모두 존재한다. 다만, 미움은 혐오대상의 행동을 고치면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싫음은 혐오주체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개선하기 쉽지 않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미움에서 기인하여 싫음으로 이행하는 경우다. 말하자면, 중국/중국인에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 계기가 행동이더라도, 그러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면, 행위 주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일반화되어 ‘행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존재’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을 미워하는 대상으로 배척하는 것일까, 싫어하는 상대로 혐오하는 것일까.

3. 20대 청년, ‘나는 중국이 싫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상자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 데에 나

검색일: 2023년6월25일.

17) 그러나 움직이는 모든 것이 윤리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의 움직임은 심미성의 영역에 속한다. 김종갑, 『혐오: 감정의 정치학』, 은행나무, 2021: 46-47쪽.

름의 계기가 있음을 피력한다. 중국인과의 일상적 접촉, 중국에 관한 부정적 정보 그리고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나누어 읽어볼 수 있다.

1) 일상에서의 대면

우선 ‘중국인과의 접촉’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가졌다고 주장한 N, K, M의 사례를 살펴보자. 세 응답자는 공통적으로 중국인의 무질서와 예의 없음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중 한 곳인 안산에 거주하는 M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무질서함을 목격했던 일화를 이야기했다. 그는 시끄러웠으며 공공질서를 무시하며 행동한다는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야기하게 했음을 피력한다.

M: 제가 안산에 사는데, 안산은 이게 공업단지라서 중국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학교 갈 때 버스 타다 보면 이게 중국인이 좀 타는데 좀 많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씩 싫은 감정이 생기긴 했어요.

인터뷰어: 혹시 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것도 있었나요?

M: 피해보다는 약간, 뭐지! 어디 서 있으면 가끔씩 새치기라고 해야 하나... 어디 음식점 들어가다 보면...

그런데 M은 중국어를 할 줄 모르기에, 실제로 “시끄럽다”와 “새치기”하는 주체가 중국인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M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그저 그의 믿음뿐이다. 월터 리프먼은 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믿음, 즉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집단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반영하는 믿음을 고정관념(stereotype)으로 설명한다.¹⁸⁾ M의 믿음은 이런 심리적 기제가 역으로 작용된 경우이다. 즉 ‘중국인이기 때문에 시끄럽고 무질서하다’가 아니라, ‘시끄럽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중국인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이런 M의 감정은 미움이라기보다 싫음에 더 가깝다.

18) 로버트 치알디니. 앞의 책, 514쪽.

그렇다면 중국인의 무질서와 비매너는 허구적인 상상에 불과할까? N의 사례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N은 고등학교 시절 중국인 유학생 때문에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N : 제가 외고를 나왔어요. ... 학교에서 기부 입학 제도를 활용을 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와서 기숙사도 같이 썼거든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라 유치한데... 안 씻어요. 개네들이. 그런 것도 있고 냉장고에서, 너무 기본적인... 그 친구들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냉장고에 있던 제 간식들을 계속 먹더라고요. 애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CCTV도 많이 돌려보고 했었는데, 커피라든가 시험 기간에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서 먹는 거나. 그리고 수업시간에 자기네들끼리 중국어로 막 얘기를 해요. 선생님 어쨌든 개네들도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저희가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은 척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 그 당시에는 진짜 다 싫어했어요. 너무 중국인이 막 컨닝하는 애들도 있었고...

M과 달리, N은 명백히 중국인의 행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고, 그의 감정은 미움에 더 가깝다. 비록 N 스스로도 “그 친구들만 그런 걸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진짜 다 싫어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했다. K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K : 저는 중국인이 저희 가족이 될 뻔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 가족이었어요. 삼촌의 와이프 분이 중국 분이셨는데 1년 만에 이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일을 저는 직접 겪어봤는데 어린 나이에 저는 그래서 완전 타지에 계시던 분이 가족으로 들어왔으니까 저는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어눌하지만 계속 한국어 쓰시려고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멋있더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실상은 좀 달랐더라고요. 이게 문화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할머니랑 같이 이제 생활을 했는데, 할머니 밥 먹으라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지도 않고 자기 뭐 먹고 싶은데 왜 이거 차렸냐라고 화내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삼촌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까지 받아 버렸던 말이에요

요. 그리고 막 이혼하고서 협박 문자도 계속 오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근데 그래서 저는 더 이제 감정이 악화가 됐었죠. 그런 일이 저한테 실제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제가 접할 수 있었던 중국, 가장 최측근인 중국인이 그런 행동을 했던 거를 경험했으니까 더 안 좋아졌어요.

집단 간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원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어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원숙연은 외국인과의 접촉의 기회가 많은 지역이나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해 거부감이나 위협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내세운다.¹⁹⁾ 위와 같은 세 가지 사례는 그의 연구결과를 다시 증명한 셈이다. 하남석 등이 2018년에 한·중·일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양 없는) 중국인’이었다. 온-오프라인에서 마주치는 중국인들의 행위가 사드 갈등보다도 부정적 감정 형성의 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인의 경우, 일본인의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부정적 정치사회적 갈등을 상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²⁰⁾ 비록 5년 전에 시행된 조사지만 지금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문제의 핵심은 정말 ‘행동’에 있을까? 시끄럽게 떠들거나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국적’과 관련 없다. 그것은 개개인의 계급적 위치, 교육 수준, 성장 환경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된다. 아주 단순하게 상상해 보자. 한국인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정도로 개인적인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중국인이 같은 행동을 하면 ‘중국인들은 왜 저러지?’처럼 국적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문제는 행동에 있지 않고 ‘기준’에 있다.

편견 섞인 감정에는 중요한 목표가 있다. 그것은 “자기 집단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인정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개인과 사

19) 원숙연,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4): 2011: 561-589쪽.

20) 하남석·김명준·김준호, 앞의 글, 8-9쪽.

회의 정체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 “정보가 너무 많은 사회적 환경을 탐색할 때 정신적 노력을 아낄 수” 있다.²¹⁾ 특정 개인의 무질서하고 비매너적인 행동, 이를 테면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특성을 국적이라는 기준을 통해 타집단의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내 집단의 우월성을 확보한다. 타집단을 깎아내리며 나의 정체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질서와 비매너로 인해 중국인을 싫어하게 된다는 주장과 그러한 감정은 중국인이라는 정체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 나와 타인을 가로지르며 나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자 하는 욕망과 우월성을 향한 무의식적 충동에 의한 발현인 셈이다. 이것은 김희교가 『짱개주의의 탄생』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종의 ‘유사인종주의’라고도 볼 수 있다.²²⁾

이상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중국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국인과의 접촉이 반드시 부정적 감정을 초래할까? 그렇지 않다. L와 K는 중국인과 비교적 장시간 심도 있는 소통을 하면서 긍정적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L: 제가 ... 부모님 영향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국어, 그 방과 후 이런 걸 들었었거든요. 거의 기억은 없지만 근데 그때 중국어 선생님(중국인-연구자 주)이랑 저랑 엄청 친해서 같이 들어서만 밥을 먹으러 간 다거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크면서 많이 좀 중립으로 바뀌긴 했지만 어렸을 때는 되게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K: 제가 어쩌다 보니까 대학을 H대에 왔고 중국인 교수님들이랑 제가 수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러니까 중국인 하면 제일 딱 생각나는 게 되게 시끄럽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배우기도 그렇고, 외국인 교수님들이랑 소통을 할 때도, ‘이게 거슬리지가 않는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경험을 하게 돼서,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는 언어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중국인 자체에 계속 이런 책(중국 사회

21) 로버트 치알다니, 앞의 책, 522쪽.

22) 김희교, 앞의 책, 111-165쪽.

에 관한 인류학 연구서(연구자 주)도 읽어보고 하면서, 중국인들이 약간 애국주의 사상을 받게 된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남득이 되서 예전에는 그냥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싫어’ 이랬었으니까 ‘싫어’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나름의 근거가 생기고, 그 사람들의 과거를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도 이해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두 대상자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과의 인간적이고 깊이 있는 소통이 긍정적 감정 형성에 중요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K의 경우 어린 시절 외삼촌의 중국인 아내와의 ‘얕은 접촉’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 정서가, 대학 진학 후 중국어 학습 및 중국인과의 ‘깊은 접촉’을 통해 긍정적으로 회복한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접촉이 사람들의 부정적 편견과 적대감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심리학자의 주장과도 일치하다.²³⁾

2) 미디어의 이미지 생산

다음으로 중국에 관한 부정적 정보로 싫어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자. 대림동 근처에 거주하는 S는 대림동의 ‘무서운 분위기’와 조선족의 범죄 위협 때문에 중국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심화되었다고 이야기한다.

S: 거기(대림동-연구자 주)를 제가 거리를 그냥 궁금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 지나갈 때마다 그냥 흘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찌러봐요. 조선족 사람들이 짝 있는데, 찌러본 것도 되게 무서웠고, 어쨌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저는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대림동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대림동에 추석이 되게 무섭거든요. ... 서울시에 거의 되게 많이, 엄청 많은 인원(경찰 - 연구자 주)이 대림동에 투입이 돼요. 맨날 칼부림 나고 그래요, 거기가 진짜. 그래서 저는 그걸 또 경찰차가 많은 걸 보기도 했고, 그리고 범죄 기사도 생

23) 로버트 치알디니, 앞의 책, 560쪽.

각해 보면 제가 되게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개수로 봤을 때 중국인 관련 범죄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과 되게 엄청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니까. 근데 도, 강력 범죄가 많은 거 보면은, 중국인을 싫어하는 프레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인터뷰어: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어쨌면 범죄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경찰차만 봤잖아요.

S: 그렇죠.

인터뷰어: 범죄 장면은 못 보셨어요?

S: 장면은 TV로 봤어요.

기타 대상자 : (웃음)

S는 대립동에서 조선족이 자신을 찌러봤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또한 ‘칼부림’, ‘강력 범죄’ 등 어휘를 사용하면서 대립동의 범죄 위험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런데 앞의 인터뷰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S가 직접 보거나 경험한 ‘조선족 범죄’는 없고 모두 언론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기사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미디어 과잉 보도에서 기인된 공포감은 외국인 범죄, 특히 중국인 범죄에 대한 과도한 언론보도와 연결성을 찾을 수 있다.²⁴⁾ 또한 <범죄도시>, <청년경찰> 등 중국인을 범죄자로 재현하는 대중문화콘텐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²⁵⁾ S의 이야기는 미디어의 편향적 재현이 외국인 혐오를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전면적

24) 외국인 범죄는 실제 범죄 비율보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범죄기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과잉재현이 나타난다. 특히 이 현상은 살인과 강간, 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과 주한 미군의 범죄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박상조, 박승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0(3), 2016. 참조.

25) 한희정·신정아,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표현의 문제-〈청년경찰〉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15(3), 2019; 음영철·김정현·노동욱, 「제한 조선족 혐오표현과 타자화 연구: 영화 〈청년경찰〉 과 〈범죄도시〉 를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57, 2021.

으로 일치한다. J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J: 저는 중국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약간 그런 입장이었는데 ... 크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 미디어를 보면 중국 청결 상태나, 약간 이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음식 같은 것도 수출입이 계속 되는데 그런 음식 같은 거에 대해서 청결 상태나 아니면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이제 중국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것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뭔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약간 오히려 0이 되어버린 그래서 약간 좋은 쪽도 나쁜 쪽도 아니다.

중국이 ‘한국/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S는 코로나 시대에 선택한 자신의 인생 결정을 예로 들었다. 코로나와 ‘군입대’를 서로 연관지었는데, 이것은 특정 사건을 통해 주체적으로 내린 결정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수동적 결정으로 전환시킨다.

S: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미 제 미래를 바꿔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 같아요. ... 제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로 군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중대한 결정을, 저한테는 미친 거죠. 그래서 그냥 빨리 군대나 가서 코로나 없어질 때까지 있다가 나와야겠다 이 생각으로 갔었어서, 선택을 바꾸는, 저는, 제 인생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군입대는 S에게 모두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건인 동시에 커다란 변화와 불안, 위협과 고통을 안겨준 사건이다. 바이러스의 발생은 ‘행동-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미학’의 문제이다. 다만, 한국인인 S는 코로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를테면 군입대-코로나-중국 사이의 인과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S는 군입대의 원인을 코로나로 돌리고 그것을 중국이 자신에게 끼친 피해라고 주장한다. 혹은 자신의 결정을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음을 유보할 뿐

이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채 미디어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인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압력을 자신들을 위협에 빠뜨린 원인 제공자를 찾아 단죄하는 것으로 해소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관련 보도의 흥미로운 유형 중 하나는 보건의로 문제로 이슈화된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는 정치적 문제로 전이됐다. 특히 코로나 확산 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쟁의 수단으로서 질병이 활용되었고, 그 과정에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양산됐다.²⁶⁾ 공포 해소의 도구로서 가장 적합한 희생자는 ‘우리’가 열등하고 미개하다고 여기지만 경제적으로 더 우위에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집단²⁷⁾이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에게 최적의 조건을 갖춘 대상이었다. S의 이중적인 중국책임론은 한편으로 코로나에 관한 미디어의 편향적 보도에서 기인하고, 다른 한편으로 불안과 공포, 그리고 계획 외 군입대에 따른 고통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전유하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 사회구조적 요인

구조적·제도적인 문제로서 야기된 정서 유형도 있다. 외교 시절 중국인 유학생과의 인연이 있던 N은 학교의 불공평한 제도가 중국인을 향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제시한다.

N: 왜냐하면 중국인은... 성적을 잘 받으면 저희 학교에서는 대부분 다 고려대나 연세대 이쪽으로 빠져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고맙죠. 왜냐하면 성적을 내주는, 입시 성적을 높여주는 애들이니까. 근데 개네

26) 김수경, 「질병과 혐오: 메르스와 코로나19 미디어 프레임 비교 연구」, 인문사회, 21, 2021.

27) 박선미,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오리엔탈리즘을 읽다」,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2020: 261-264쪽.

들이 컨닝을 해서 한 명이 저보다 점수를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리가 밀려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는데, 학교에 서는 해결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중국인이 돈도 많이 내고 개네가 대학을 잘 가야지 고등학교의 평가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중국인에 대한 딱히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N는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높은 성적과 대학 진학 기회를 바르지 못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전도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N의 오해일 뿐이다.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대학에 진학할 경우 정원의 모집인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인 N과는 애초부터 경쟁 관계가 아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의 부정행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학교의 잘못이다. 그런데 N는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난하는 대신, 오히려 중국인의 경제력과 학교 평가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들며 학교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중국인의 부정행위와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핵심인 사건이 ‘중국인의 돈 때문에 행정력이 빠진 한국 학교’와 ‘부도덕한 중국인 때문에 기회가 빠진 한국 학생’의 이야기로 서사화된 것이다. 사회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자기 정체성을 성립하는 것처럼, 내 집단과 타 집단 비교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관리하기도 하다. 내 집단을 높이거나 외집단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위협받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아 감각이 만성적으로 위협받는 사람은 그런 회복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것이다.²⁸⁾ 학교의 부실한 관리와 대학 입학이라는 중대한 이슈는 N이 타 집단에 속한 중국인에게 스스로의 고통을 전도하면서, 윤리적·제도적으로 위협받는 나와 내 집단의 정체감을 지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동북공정, 김치논란, 한복논란을 비롯한 역사 문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안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싫어하는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²⁹⁾

28) 로버트 치알디니, 앞의 책, 538-544쪽.

29) 역사와 안보 문제에 대한 양상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어, 이번 연구에선 확장하여 기술하지 않겠다.

4. ‘한중관계’ 해체를 통한 통합

이와 같이 20대 한국 청년이 중국에 부정적 감정 요인은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요인으로, ①일상적인 접촉에서 접하게 된 교양 없는 중국인, ②중국의 ‘추악한 진실’을 무분별하게 양산한 미디어, ③중국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은 모두 중국/중국인의 ‘행동’ 또는 ‘존재’에서 기인한 ‘실재’처럼 보이지만, 부정적 정서를 생산하는 기제의 밑바탕에는 ‘정체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즉 우리가 겪은 불이익을 열등한 ‘그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우리와 구별지음으로써, 그들의 열등함을 통해 우리의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이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발현한 원인은 그 우월성을 향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원한 기준이 국적에 위치하는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테면, 만약 이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접촉과 정보가 부정적 정서의 원인이라면, 이런 접촉과 정보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편견과 혐오는 국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급, 성별, 종교, 취향 등 다양한 구분에 의해 생산되고 전파된다. 이 모든 집단의 접촉을 차단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분으로만 귀결시킬 수 없다. 우리는 한국인 혹은 중국인이기도 하고, 남성 혹은 여성이기도 하며, 노동계급 혹은 자본계급이기도 하고, 이성애자 또는 동성애자이기도 하다.

집단 간 접촉을 차단할 수 없다면, 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집단간 부정적 편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은 ‘잘 몰라서’라는 가설에 동의한다. 그런데 사회심리학자들은 단순한 접촉만으로 집단간 적대감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혐오를 해소하려면 집단 간 접촉에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각 집단 구성원이 부정적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사람들은 관용이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믿을 때 포용성이 높아지므로 지역 당국과 규범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셋째는 집단 간 교류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인지하는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넷째는 나와 타자는 공통점이 있으며 각자의 독립성은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접촉을 통해 일어날 필요가 있다.³⁰⁾ 요컨대, 비판적 능력, 관용의 실천, 평등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국적 외에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하다는 인지가 전제된 접촉이 이루어질 때 적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복잡미묘한 양국 간의 협오가 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30) 로버트 치알디니, 앞의 책, 560쪽.

參考文獻

1. 저서

- 김종갑, 『혐오: 감정의 정치학』, 은행나무, 2021.
김희교, 『짱개주의의 탄생』, 보리인문학, 2022.
로버트 치알디니·더글러스 켈릭·스티븐 뉴버그, 김아영 옮김, 『사회심리학 :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적 상황의 힘』, 웅진지식하우스, 2020.

2. 논문

- 김수경, 「질병과 혐오: 메르스와 코로나19 미디어 프레임 비교 연구」, 인문사회, 21, 2021.
김희교, 「특집/만들어가는 한·중관계]한국 언론의 동북공정 보도 비판」, 역사비평, 69, 2004.
노고운, 「팬데믹 감염병의 타자화: 코로나19 시대 한국 내 중국동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5(3), 2022.
박상조·박승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0(3), 2016.
박선미,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오리엔탈리즘을 읽다」,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2020.
원숙연,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4): 2011.
음영철, 김정현, 노동욱, 「재한 조선족 혐오표현과 타자화 연구: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57, 2021.
임대근, 「한-중 문화갈등의 발생구조와 대응방안」, 한중사회과학연구, 1(3), 2012
임대근, 「한-중 문화갈등의 발생양상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63, 2022.
장소영·김희교, 「중국 관련 보도의 어휘 사용과 반중 감정-〈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사드 배치 보도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65, 2022.

정진성·박성혜·김원,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샤이닝니키」 한복 논란 및 반중 정서 연구」, 중국현대문학, 103, 2022.

최윤경, 「2017~2022년, 한국의 반중(反中) 의미 - 네이버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동서인문, 21, 2023.

하남석·김명준·김준호, 「한국 청년 세대의 온라인 반중 정서의 현황」, 현대중국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21.

한희정·신정아,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표현의 문제 -〈청년경찰〉 손해 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15(3), 2019.

3. 기타

한국리서치, <https://hrcopinion.c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Abstract

A Study about Chinese Sentiment among Young Korean

— approach with FGI

Lu Chen · Oh, So Jeong

This article explores the causes of negative sentiment toward China among young South Korea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ns' negative sentiment towards China has reached a new high. The negative sentiment is especially pronounced in the 20s. Considering that the generation of 20-somethings will shape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better understand the causes of negative perceptions toward China. To explore the causes of negative sentiment, we will conduct a focus group interview (FGI)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with Korean young adults, a group not covered by existing research. While this study cannot provide a solution, we hope that it can provide a lever to look directly and closely at our current situation.

Key words : hate, hate China, anti-China, 20s, Korea-China conflict, Korea-China relations

투고일: 2023. 7. 10. / 심사일: 2023. 7. 15.~ 2023. 8. 15. / 게재확정일: 2023. 8. 20.